

세상으로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하는 진해장애인복지관

# 바지랑대

빨래를 널면 그 무게 때문에 축 늘어지는 빨랫줄을 다시 돌우어 올리는 긴 장대를 말합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삶을 살아가는 힘을 다시 돌우어 희망과 용기의 장대 '바지랑대'가 되고자 합니다.

발행일 2017.12 | 발행인 이흥우 | 기획 및 편집 우소정

주소 5162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번지 (풍호동 1번지)

전화 055) 540. 0400 | 팩스 055) 541. 0400



우	리	에	게	허	락	된
인	생	과	더	불	어	
그	들	과				
잘	살	아	가	는	것	



**박지민**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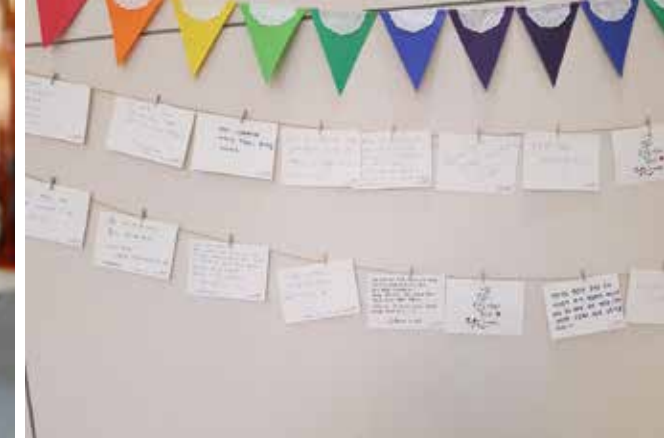
기가 쉽지 않은데 장애인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온종일 불편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복지관에 입사하기 전 장애인들을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라는 곳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동하고, 문화를 즐기고, 또 무언가를 배우는 평범한 하루를 잘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온 몸으로 받는 생활이야 말로 그들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장애인들도 자연스럽게 사회로 나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 어느 다큐 프로에서 “장애라는 말에는 비교 대상이 있는 상대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어떤 조건으로 누구와 비교하고 어떻게 적용 되느냐에 따라 장애가 되기도 아니기도 하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비교하여 나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며, 자만심을 가지고 상대와 거리를 두기 보다는 많은 것을 나누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며,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과 더불어 그들과 잘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2017년도 달력의 날이 보름남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함께 함의 즐거움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날



꽤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게 아니라면, 초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Red Dress Code(빨강 드레스 코드)로 연출을 하고 각자의 개성에 맞춰 22일 저녁 진해 연리지 뷔페로 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게 되니 너무 좋아요"

말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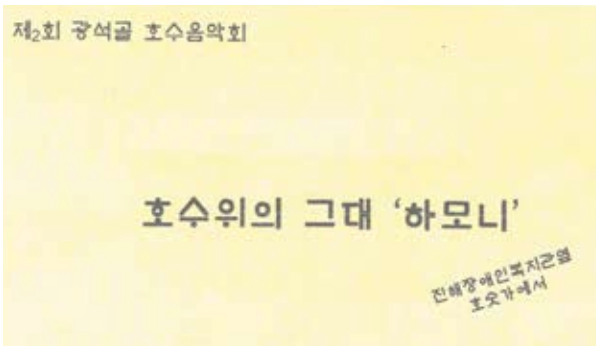
1부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포상 기념식이 있었고, 2부에서는 이용자 및 직원공연의 다채로운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최고의 음식, 최고의 분위기, 최고의 음악 그리고 즐거운 마음들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그날 모인 사람들을 보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 제 2회 광석골 호수음악회 호수 위의 그대, 하모니

## 진해역을 배경으로 토크/전시/공연이 어우러지는 블라썸 여좌 토크아트콘서트 "니가 있어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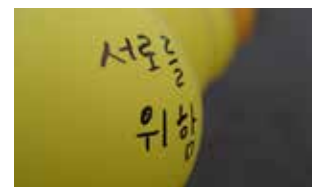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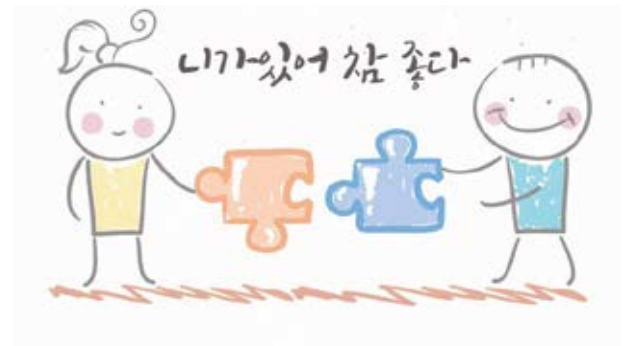
북지관 옆 광석골호수에서 제2회 광석골호수음악회 '호수위의 그대 하모니'가 10월 21일에 2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음악회를 찾아주신 지역주민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처럼 좋은 날씨, 좋은 음악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이분이 장애인인줄 모르고 들었다. 실력이나 공연이 너무 멋지고 비장애인들과 차이가 없음을 알았다.'라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10월 28일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여좌동 도시재생사업에 일환으로 블라썸여좌토크아트콘서트 '편견'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가 '니가 있어 참 좋다'라는 따뜻함이 지역의 블라썸이 되는 바람으로 토크 주제인 '편견'과 어우러져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역광장의 가을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중석을 가로 지르는 '편견의 벽'을 통해 우리 사회 안에서 서로가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그것을 깨 부수 것이 어렵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산책하고, 지역주민들이 힐링하는 곳  
광석골 호수 함께 산책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편견을 나눠보고 편견의 벽을 함께 무너뜨려 보는 건 어떨까요?

# 진해 특수학교설립 현장 간담회, 그리고 그 후

7월 17일 오후 2시,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는 특수학교 설립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6월 어느 날 경남교육청에서 진해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었고 그때 경남도교육청 정승욱 장학관님과 두분의 장학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특수학교 관련이라는 말씀에 지역내 장애아동 보배어린이집 서은숙원장님과 이흥우 베네딕도 관장신부님 총 6명이 첫 자리를 하셨습니다.



경남도교육청 정승욱 장학관님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해 특수학교 설립추진 경과상황을 안내하셨습니다. 특히, 진해 내 특수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인 5년 동안만 웅천초등학교를 특수학교로 임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창원시와 협의하여 특수학교 설립부지로 적당한 곳을 물색 중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이 어려운 부지이거나 도시계획상 학교설립이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 관장님께서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특수학교 관련자, 장애부모, 관련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모였습니다. 이흥우 베네딕도 관장신부님께서는 이 간담회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소통의 자리임을 표명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진해지역 특수학교 설립 요구를 반영해 지난 5월 웅천초교를 특수학교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웅천 주민에게 전달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 6월 잡았던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웅천주민대표는 서신을 통해 "웅천동은 웅천읍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7.5m 이상 건물을 건립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 받아왔다.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웅천초교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며, "역사관·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부족한 중·고교 부속시설(종합체육관)로 활용해 주민들 불편을 먼저 없애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300명**  
진해지역 특수교육 대상  
(초·중·고등학생)

---



**90명**  
타지역 특수학교 재학생  
(경남혜림학교·창원천광학교)

---



**90명**  
일반학교 재학중인 특수장애 학생

---



**2시간**  
평균 등교 소요시간

그러나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 년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입장, 부모의 입장, 지역주민의 입장이 조금씩 또는 아주 다른 입장이 표현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 보고 소통해 보자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사회자인 염동문교수님은 행정에서도 교육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10월, 경남도교육청 정승욱 장학관과 박영식 장학사님께서 재방문하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진 두분은 외진 곳이 아닌 진해의 중심에 특수학교 부지를 물색 하여 11월에 공표 할 예정이며 창원시에도 특수학교가 1개교 더 생길 것이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유모차형 휠체어를 3명 신청하였는데, 선정이 되어 2017년 9월 11일 전달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받고 처음 타는 날 활짝 웃던 아이들의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장학재단과 함께하는 '2017 장애학생 학습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각도 높낮이 조절 책상을 1명 신청하였으며, 2017년 12월중 전달 받을 예정이고, 롯데복지재단과 함께하는 '2017 장애아동·청소년 일상생활 편의증진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장애아동 카시트를 1명 신청하여 2017년 12월중 전달 받을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장애아동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 사례관리 실천 즐거워지다. 소통up! 역량up!

최근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사례관리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사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대한 사례관리 중요성을 인식 2015년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진해장애인사례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런 실천 속에서 우리가 지역장애인분들 잘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결정을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역장애인분들의 주인 된 삶을 지원하는 일이 쉽게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적당히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실천 가치는 무엇이며, 사례관리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경남지역의 사례관리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사례관리 토크 콘서트는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김영숙 과장, 김제사회복지관 정수현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사례관리에 대한 가치, 실천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관리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동료 사례관리자간의 교류와 사례관리자의 가치, 정체성, 사례관리 실천방법 등을 함께 고민하고 나눔으로써, 지역장애인분들의 주인 된 삶을 더 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우리도 할수 있다!! 취업지원반 및 직업적응훈련반 모의면접·이미지메이킹



진해장애인복지관 취업지원반 및 직업적응훈련반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인식교육 '이미지메이킹 및 모의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11/27(월) 하루 종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취업에 대비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직접 모의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겐 떨리고도 설레는 경험이었답니다.

## 훈련생 후기



최\*영(여, 35세)

'나도 취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정말 일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생각해왔지만 막상 취직을 한다고 상상을 하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처음 어나운서에게 이미지메이킹 특강을 듣고 실습업체 대표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모의면접은 어찌피 진짜는 아니니까 하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게 되니 진짜 처럼 떨리고, '아, 면접은 이런거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꽃보다 이웃

## 가족과 같은 나의 따뜻한 이웃을 소개합니다.

16년 4월 복지관으로 한통의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주 1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집 주변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 분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꽃보다 이웃 봉사활동을 하고 싶는데 가능할까요?”라는 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봉사자 선생님께서 어떤 분을 소개 시켜 드릴까 고민하던 중 이동에 살고계시는 김\*\*어머님을 소개 시켜 드렸습니다.

음식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맛집을 함께 찾아다니며 외식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러 다니는 등 친필도 하기 힘든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힘드시지는 않냐고 묻자,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 분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내 가족 같습니다. 어떤 요리를 좋아하실지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걱정이 아닌 기쁨이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인사하며 안부를 묻고, 음식이 어떤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서로의 논하여,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작은 것부터 서로에 대한 관심을 나눈다는 것이 참 사람다움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약 2년 간 사람다움을 실천해 주신 꽃보다 이웃 선생님, “반찬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 부르며 뭐가 드시고 싶은지 물어주고, 같이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노, 세상천지 자식들도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데 이 사람은 부모도 아닌 나에게 너무 잘해 준다. 내 평생 이런 좋은 인연이 없다. 고맙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라고 이야기 해주신 김\*\*어머니. ‘사회복지’ 하길 잘했던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룹홈 가족여행

올 연말에는 특별한 가족나들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의 자립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 식구들의 대마도 가족여행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첫 해외 나들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김\*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2월8일~9일 1박2일간의 일본 대마도 여행을 다녀왔다. 처음으로 우리 엄마들도 함께 다녀왔다. 첫날 배를 타고 대마도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숙소에서 짐을 풀어놓고 근처에 있는 면세점, 마트에 가서 쇼핑도 하고 대마도에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직접 만들어 먹는 가게집에 가서 맛있는 오코노미야키를 먹었다.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 또 와서 만들어 먹고 싶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숙소에서 잘 준비를 하고 둘째날에는 온천에 가서 온천을 즐기고 온천 안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어머니들과 선생님들과 언니들과 사진도 많이 찍어서 좋은 추억을 남겼다. 그룹홈선생님, 언니들이랑 처음으로 여행을 갔지만 너무 재밌었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공동생활가정 김\*미



## 공영자전거 세차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2017년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선정

우리복지관에서는 2017년 09월부터 청년장애인의 직업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청년형)사업’을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공영자전거세차사업은 창원시공영자전거 ‘누비자’ 세척을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직무로 전국 최초로 우리 복지관에서 추진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열린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로 선정되는 기쁜 일이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활약! 지켜봐주세요~





## 한눈에 보는 진해 장애인복지관 하반기 소식

### 01 지역나눔행사 다함께차차차 설국열차

12월 13일 오전 6시 30분에 지역의 새벽을 여는 (주)동성산업 직업분들께 따뜻한 국밥과 다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성산업 식구들을 응원하고자 덕산성당 자모님이 그 전날 맛있는 국을 끓여내 주셨고, 서툰 솜씨의 바리스타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2017년 서로 더 따뜻한 한해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02 2017 활동보조인 연말행사 감격Day

17년 12월 1일 더 연리지에서 활동보조인의 감사와 격려를 위한 연말행사 감격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기근속자 시상, 드레스코드 핑크에 맞춘 패셔니스타 시상, 간단한 퀴즈를 통한 경품전달, 선임활동보조인 실습비 지급,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03 화합과 소통으로 돈독하게 결집 된 성장 호박문학회 문집 6호 발간 기념 시 낭송회

11월 17일 진해 보타닉 뮤지엄에서 "호박문학회 문집 6호 발간" 기념 시 낭송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집 6호는 회원들의 삶의 고백·소통·이해·나눔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낸 "달보드레"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보타닉 뮤지엄에서는 예쁘게 준비한 다과(따뜻한 차)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셨고 김홍돌 시인·벗꽃 색소폰 합주단의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호박문학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문학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보고, 서로 소통하고, 지지적 역할을 하며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 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공감·소통하기 위해 발간 기념 시 낭송회에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였고, 정성스레 시를 읊어 내려가는 회원들의 모습과 일몰이 지는 풍경이 조화로움을 보여주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 04 주간보호센터 2017년 요리교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해찬솔』 자원봉사단과 함께 매월 요리교실이 진행됩니다. 이용자들은 요리교실을 통해 재활운동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며 사회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재료를 스스로 손질하고 만들며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요리를 나눠 먹으며, 감사의 마음과 예절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고운 손길을 나누어 주신 분들 (17년 4분기)

신규자원봉사자 김도현, 김현성, 민지홍, 박노준, 박민규,  
 박재홍, 방수빈, 오진철, 윤성현, 이인록, 한승욱, 이정호,  
 정재욱, 이재원

꽃보다 이웃 김현정, 박혜련, 이경근, 이희현, 정기순, 조선화,  
 소망교회, 여좌성당, 진해YWCA, 침례교회, 한화테크윈

사계절 김치담기 바르게살기운동진해구협의회, 한화테크윈,  
 작은마음봉사단

재가장애인 가사도우미 경화성당 찬성하울동정녀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 바르게살기진해구협의회여성회,  
 진해남중샤프론, 진해경찰서곰메동아리

재가장애인 전기 점검 봉사 한국전력공사 진해지사

재가장애인세대 청소 및 정리 장생포함, 해군 81전대 5훈련대

재가장애인 병원동행 해군정비창 봉사단

차량무상점검 나누기봉사단

가족정서지원프로그램 종이비행기  
 경남대물리치료학과 봉사단

방과후 요리교실 진행 해찬솔봉사단

장애청소년 방과 후 교실 강하나, 김순곤, 박혜련

민들레울 바리스타보조 바리스타봉사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청소 김미진

장애인 일손돕기지원 진해여고 경찰동아리, 경남샤프론진  
 해지구, 해군기지사령부

나눔의 날 필로스, 희산라이온스, 촛불봉사단, 회장단동아리

청소년어울림마당 남중 샤프론, 석동중 샤프론

아동발달지원센터 수중심리운동 및 그룹수중치료 대체프로그램  
 진행보조 김은희, 김희진

웅동나눔장터 진행 및 진행보조 청소년인권서포터즈

블라섬여좌 토크콘서트 진행보조 청소년 인권서포터즈

호수음악회 차나눔 풍호동 자원봉사회

프로그램실 청소 중앙고샤프론, 해군81전대 5훈련단, 해군특수  
 선박운동대

복지관 환경미화 이시준

식당정리·정돈 콩알봉사회

<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정리정돈 콩알봉사회

아장방견학프로그램 해찬솔

아장방/동화읽기 김현령, 박가영, 배진희

어린이요리특강보조 박진경, 배시연, 배인화, 이나현, 이수빈,

이지우, 조기민, 하은혜

책읽기봉사 임소진

놀이방청소 이승혁

토요요리특강 배진희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검도교실 배봉수, 이성남

구연동화 송미진

기초학습 신미정

난타교실 정수련, 웅동적십자

레크스포츠 장영희, 노영환

요리교실 해찬솔

웅동노래교실보조 성명숙